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초읽기'

전북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주재 긴급 전략회의
국회 예결위 심사, 소소위 전환… 막판 점검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 2026년 국가 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단계 심사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도지사 주재로 핵심 지휘부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단계 중점사업의 막판 점검 및 대응 방안을 짚증 논의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달 25일부터 심사 방식을 소소위로 전환하고, 감액 보류 및 증액 심사 등 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돌입해 긴 박한 국면을 맞았다. 각종 항목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으로 2026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까지인 법정기한 내의 결의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국회 소소위 심사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우선, 각 실국은 기재부의 증액심사 일정에 따라 미온적이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는 사업을 중심으로 논리 보강 및 설득 자료를 시급히 준비하고, 기재부 예산실 실무 라인과의 접촉을 강화해 증액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예산실은 현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상주하며 증액 사업 검토를 진행 중이다. 각 실국은 국회상 주민과 협력해 기재부의 자료 요구 및 사업 설명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 과정에서 파악한 기재부의 입장과 반응을 바탕으로 사업별 쟁점과 대응 방

안을 공유했다.

향후 기재부의 증액 사업 검토 결과에 따라 핵심 쟁점 사업 위주로 기재부 장·차관 및 예산실장 등에 대한 지휘부 차원의 건의를 추진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으로 최종 반영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회 심사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단 하나의 사업도 포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심사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만큼 각 실국이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실국장들은 중점사업 전체가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기재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2026년 국가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단계 심사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긴급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 은폐 의혹 제기

온혜정 전주시의원, 시 자원순환녹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행점 전주시의원(우아·2동, 호성동)은 26일 열린 자원순환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는 8월 이후 사업이 멈춰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추진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중단 상태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온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2024년 연내 미착공 시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고 재취득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직접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4개월 동안 관



련 절차나 협상 경과를 의회에 공유하지 않은 채 사업은 멈춘 상태로 나타났다.

온 의원은 "사업 중단의 핵심 사유로 지적된 바이오가스 공급단가 협상 결렬은 전주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였음에도 협상 과정이나 대안 검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협상임에도 행정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내 미착공 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시에 전달했을에도 시가 기한 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 무산을 사실상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5억 원 규모의 사업부지 9필지를 매입했고, 이 중 7필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온 의원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매입 토지 활용 방안조차 없어 수십억 원대 시민 세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희성 기자

도의회 문안위, 전북소방안전타운서 현지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 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6일 장수군 계남면에 위치한 전북소방안전타운을 방문해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지난 7월 준공한 '실화재 훈련시설'의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훈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화재 훈련시설'은 총사업비 39억 7,0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1,186㎡ 규모로 조성되며, 특수 열기·냉연 등 실제 화재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래시오버 셀, 백드래프트 셀 등 5종의 표준 훈련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소방본부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을 끊임없이 살피며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특히, 훈련 시설이 완공되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지휘 전술 등 다양한 훈련이 가능해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정규 위원장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는 화재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실화재 훈련시설이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화재 훈련시설은 지난 7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전북 소방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6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안건 의결과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9일간)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과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임준 군산시장의 시정 연설이 있었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이자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소통 행정 '으뜸'… 도, 2025 올해의 SNS 4관왕

광역지자체 부문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수상

의산·부안 등 도내 시군도 기초지자체 부문 우수 성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2025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광역지자체 부문에서 유튜브 대상,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최우수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올해의 SNS'는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한국인터넷언서산업협회 후원으로 진행되며, 매년 SNS 운영이 우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발굴해 시상한다.

전북도는 경쟁이 치열한 4개 부문을 모두 석권하며 국민과의 디지털 소통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광역자체로 인정받았다.

팔로워 6만4,000명의 유튜브는 유용한 정책 정보와 생활 밀착형 소식, 신속한 재난 안전 수칙 전달 등으로 믿을 수 있는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팔로워 6만4,000명의 인스타그램은 전북 관광 홍보에 집중하며 사진작가 협업으로 노출 수를 3배 이상 끌어올렸고, 속풀 영상 등 짧은 총의 감성을 반영한 콘텐츠로 타 지역에 앞질렸다는 분석이다.

김선경 전북자치도 소통기획과장은 "도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다각적 시도가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일방향 홍보가 아닌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쌍방향 콘텐츠로 SNS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군도 이날 2025 올해의 SNS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의산시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2관왕을 달성했다. 시는 속풀 중심 콘텐츠 개편과 생생형 AI 도입 등 최신 트렌드에 적극 대응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안군은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부안여행(@burn_tour)'을 통해 감성적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부안마실축제, 부안관광택시, 변산비치샵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만호 기자

"균형성장 의지, 예산으로 보여줘야"

민주 박희승 의원, 내년도 예산 편성에 국가철학 반영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장수·남원·순창·임실)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균형성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결국 예산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어디에, 얼마나 배분하느냐는 단순한 재정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미래 방향이 드러나는 결정"이라며 "그만큼 예산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올해 예산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둔 가치로 '국가균형성장'을 꼽았다.



박 의원은 △공공의대 남원 설립 △새만금 RE100 산업단지와 신공항 조성 △제2 중앙경찰학교 전북 유치 △교육 불평등 완화 △대전·남원선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 배열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신호"이라며 "이제 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통해 확고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균형성장을 국가적 핵심 목표로 인정한다면, 이를 담보하는 예산 배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지금이 피지컬 AI 투자 골든타임"

정동영 통일부장관, AI G3 강국 신기술 조찬포럼서

국회에서 피지컬 AI와 초거대 AI 시대에 대비한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AI G3 강국 신기술 조찬포럼'이 26일 열렸다. 포럼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겸임)과 최현우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NIPA가 주관했다.

정동영 장관은 "소프트뱅크가 스위스 ABB로봇 사업부를 7조7,000억원에 인수 했다"며 "한국도 피지컬 AI에 투자해야 할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첫 발표자인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저출산·고령화로 제조업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지능형 로봇 시장 확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로봇 안전기준에 AI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AI로봇을 위한 '페스트트랙 안전 인증'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국내 생산 로봇 향상으로 2분기 기준 목표액 1조8,070억원을 크게 웃도는 2조3,140억원(128.1%)을 집행해 전국 2위에 올랐다.

이 같은 성과로 1분기 우수기관 선정으로 2억3,000만원을 지난 5월 교부 받았고, 상반기에는 1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난 10월 받았다. 확보한 인센티브는 도민 편의 증진과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체계적인 집행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대규모 투자사업 공정률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며 집행률 제고에 주력했다.

아울러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불용 사업과 성과가 불명확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정했으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설비 사업은 필요 비용만 반영해 내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도당, 내일 '혁신여성정치 아카데미'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박정규)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리더쉽 강화를 위한 '2025 모두의 평등, 혁신여성정치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8강으로 진행되며, 전북 지역 당원 및 정치 참여여관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이 참여 가능하다.

아카데미 커리큘럼은 △'중대선구제'로 관을 비꾸자(정진숙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의 이해(안영관 선거관리위원회 회장) △지방선거와 지역언론(하현호 JTIV 기자) △한법상 평등

권과 차별금지법의 이해(전용일 전북 대학교 초빙교수) △양성평등의 역사적 쟁점과 향후 과제 조망(정희진 여성학·평화학 연구자) △전북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노현정 전 전북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통합돌봄은 기본권(김선민 국회의원) △전북 여성 활동가와의 대담(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재원 문화기획자)으로 구성됐다.

도당은 앞으로도 여성 정치 인재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